

6·4 모의평가 이후, 2009학년도 대입 지원 전략은

고난이도 문항으로 변별력 평가 목표대학 정한 뒤 '맞춤공부'를

지난 4일 올해 첫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가 전국적으로 치러졌다. 이번 모의고사는 전반적으로 지난 2008학년도 수능에 비해 어렵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모의고사의 출제경향 및 난이도를 바탕으로 2009학년도 수능의 전략을 세워야 한다. 특히 올해는 등급제와 함께 점수가 제공되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더 꼼꼼하게 자신의 성적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점이 중요하다

점수제가 부활하면서 수험생들에게는 점수 1점이 더 절실했다. 표점점수나 백분위를 활용할 경우 전 영역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던, 특정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던 차이가 없이 총점이 높은 수험생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변별력 확보 수단인 고난이도 문항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점수제 부활과 함께 수도권 주요 대학들이 정시모집에 서 눈길을 실시하지 않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세부 학습전략 따라 총점이 중요하게 되면서 자신이 잘 하

는 영역에 '올 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 됐다. 대학에 따라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원을 고려하는 대학의 수능 반영 영역 및 가중치를 확인해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6·4 모의고사의 비중이 큰 것은 수능 출제기관에서 동일한 시험환경으로 시행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자신의 위치 파악이 가능한 셈이다. 수능 성적이 학생부 성적에 비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정시모집을, 반대의 경우는 수시모집 지원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원 변동은 주의하라 2009학년도 대입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예상되는 가장 큰 변화는 전년대

학원 설치로 인한 정원 변동이다. 인문계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자연계는 의·치의학·약학전문대학원이, 자연계는 의·치의학·약학전문대학원이, 자연계는 의·치의학·약학전문대학원이, 자연계는 의·치의학·약학전문대학원이

의·치의학전문대학원은 몇 해전부터 학부 신입생 정원이 줄고 있는 추세이며, 약학과는 2+4체제로 변경됨에 따라 2009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을 계획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6·4 모의고사는 2009학년도 수능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반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기에 용이하다. 수험생들은 점수제 부활에 따라 달라지게 될 기능성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캠버스 소식

조선대 대학원 국제 차문화 학과 개설

조선대학교 대학원(원장 백재선)이 광주·전남지역 차(茶) 문화를 세계화하기 위해 국제차문화학과를 신설했다.

전남대, 학습 프로그램 성과 발표회

전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원(원장 이지현)이 추진 중인 학습 프로그램의 성과발표회가 11~13일 교내 일원에서 열렸다.

광주대-한국지역진흥재단 업무 협약

광주대학교(총장 김형중)는 최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진흥재단(이사장 최계호)과 지역진흥에 관한 업무협조 약정을 체결했다.

담배연기 없는 학교 우리 스스로 만듭니다

광주 첨단고, 학생 자율 금연프로그램 성공

"금연은 우리끼리 해결합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의 조사 결과 청소년 흡연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 법인화, 대학 자율성 확보돼야”

오늘 전남대서 전국 국·공립교수회 '대토론회'

'뜨거운 감자'인 국립대 법인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와 광주·전남지역 국립대학교수회가 공동 주최하고 전남대 교수협의회가 주관하는 '국립대 법인화 대토론회'가 12일 오후 2시 전남대 국제회의동 옹골홀에서 개최된다.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ASSET KOREA (주)에셋코리아. (법원원장 지산주유소) 행복한 경매상담 ☎ 062-236-3400. 전국 2만여건의 무료 경매정보 홈페이지 http://www.assetkorea.com

HOME CON 홈컨 不動産 리서치 상무지구 한국은행 뒤 ☎ 062)385-9994. (부동산) 프로젝트 仲介·開發·리서치 선인!

금당부동산 ☎ (062)223-7400 ☎ 016-632-5659. 매매·교환·개발·건축부동산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해결하겠습니다.